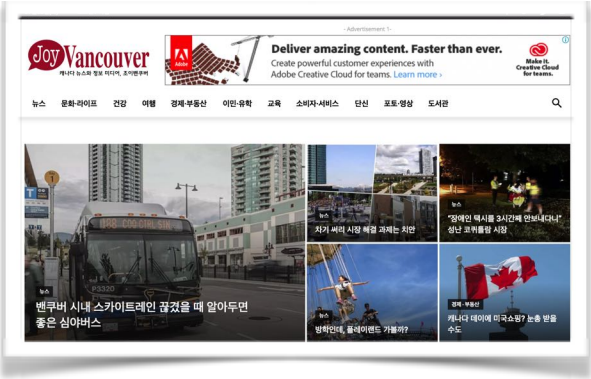
BUSINESS PROPOSAL 2018년 7월 3일

JoyVancouver.com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로 귀사에 제안을 드립니다



기사 공급 서비스

1994년부터 기자

안녕하십니까? 밴쿠버에서 조이밴쿠버를 운영하는 권민수 대표입니다. 저는 1998년 밴쿠버 한국일보 입사 이후 1년의 공백기를 제외하면 19년간 기자로, 지난 8년간 밴쿠버 조선일보 편집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이러한 경력과 전문성을 토대로 언론사 경영진 여러분께 기사 공급에 관한 제안을 올립니다.

온라인에서 많이 보는 기사

6월 기준 조회수 48만1,376건

조이밴쿠버 방문자 수는 2018년 6월 기준 11만5226명으로, 조회 수는 48만1,376건입니다. 독자는 캐나다 거주자가 95%로, 주로 서부 캐나다에서는 많은 분이 읽고 계십니다.

조이밴쿠버는 앞으로도 온라인 매체로 계속 자리 잡고 대신 유수 신문사와 잡지사에 인쇄용 기사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아래 가격으로 귀사에 기사 공급 서비스를 제안합니다.

1

SUPREME

$1,200/주(+GST)
주당 기사 16건+사진 · 도표
인터넷 게시권 제공.
기사/취재 요청 가능.*
(취재 비용은 별도)
해당사에만 공급 .

2

PREMIUM

$900/주 (+GST)
주당 기사 12건+ 사진 · 도표
인터넷 게시 불가.
기사/취재 요청 가능*
(취재 비용은 별도)
타사와 같은 조건 계약가.

3

REGULAR

$700/주 (+GST)
주당 기사 10건+ 사진 · 도표
인터넷 게시 불가.
기사 요청 불가.
타사와 같은 조건 계약가.
joyvancouver.com 표기

전문성

지난 19년간 캐나다에서 기자로 활동해온 경험을 담습니다.

저렴한 비용

프리랜서 서비스로 고용보다 저비용입니다.

*취재 요청 가능

슈프림 또는 프리미엄 계약 시 귀사의 요청 취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 원하는 기사 장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서부 캐나다에 관한 정확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사 제공

조이밴쿠버는 현재 1인 미디어로 캐나다 서부 지역 뉴스와 생활 정보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미디어 자리만 고수할 계획입니다.

슈프림 또는 프리미엄 기사 공급 계약이 이뤄지면 귀사 편집부 요청에 맞춰, 주제나 분야에 따라 기사를 작성해 송고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정치, 경제, 사회부터 부동산, 환율, 역사, 한인 인터뷰까지 다양한 내용을 다룹니다.

모든 기사는 제목과 내용, 사진으로 구성하며 즉시 편집에 반영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과 교정 후 이메일 또는 온라인 저장고를 활용해 보내드립니다. 슈프림 계약 시, 요청에 따라, 귀사 웹사이트에 기사를 직접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취재비용은 평일 시간 당 C$25+GST, 주말 기본 C$40+GST에 시간 당 C$25을 부과하며, 요청을 받으면, 사전에 예상 비용을 알려드립니다.

기사 공급에 관한 제안을 검토해 주시고, 연락 부탁드립니다.

조이밴쿠버 사진과 도표는 대부분 자체 취재 결과물입니다. 19년간 맺은 네트워크와 보도 자료 등을 토대로 저작권 문제없는 기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 편집부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기 사진은 2017년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한국문화의 날, 도표는 캐나다 주별 인구>.

서로 승승하는 관계 시작을 기원합니다.

한인 언론사에 20년간 몸담으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사를 한인사회에 공급해 등불이 되고자 노력하는 분들과 이번 제안을 통해 좋은 관계를 시작하기를 희망합니다.

권민수 배상

연락처: (778) 984-5567

이메일: ms@joyvancouver.com